

작년 세수 1.8조 더 걷혔다... 3년만에 대규모 세수핑크 탈출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과 임금 상승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3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 실적은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세입 전망치(372조1000억원)를 1조8000억원 웃돌며,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이어진 대규모 세수 결손에서도 벗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의 불용 규모도 5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다만 이 같은 세수 실적은 세입 부진을 반영해 추경으로 목표치를 낮춘 결과로, 본예산(382조4000억원) 대비로는 8조5000억원 부족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핑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허장 2차관과 이남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작년 국세수입 373.9조...추경 기준보다 1.8조 더 걷혀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336조5000억원)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추경 기준 국세수입 예산(372조1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힌 수준이다.

앞서 정부 재정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핑크를 냈다. 2023년엔 56조4000억원, 2024년엔 30조8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기업 실적 회복과 고용·임금 여건 개선 등이 맞물리며 3년 만에 세수 여건이 개선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22조1000억원 늘어 전체 세수 확대를 주도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도 7조4000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거래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3조2000억원,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2조2000억원 각각 늘었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일부 환원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로 3조1000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 역시 세율 인하 영향으로 역시 1조3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24조원으로 예산(227조9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덜 걷혔다.

재경부는 배스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들이 불합한 NXC 주식 매각(예산 3조7000억원)이 성사되지 않은 영향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으로 예산(600조원) 대비 2조1000억원 부족했다. 2024년(535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총세입 규모가 62조원 가량 증가했다.

◆작년 본예산 대비로는 8.5조 덜 걷혀...사실상 3년 연속 '세수 핑크' 지적도

한편 이번 국세 수입 실적은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8조5000억원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면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행사'에서 이남구 감사원 감사위원과 함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재경부, 2025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 마감 작년 국세수입 373.9조... 전년비 37.4조↑ 추경 기준 전망치보다 1.8조 더 걷힌 수준 작년 본예산(382.4조) 기준으로는 8.5조 결손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 22.1조↑

서 세입 예산을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원으로 10조3000억원 가량 감액하는 '세입경정'을 실시했기 때문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당시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금융·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등을 반영한 것이었다.

재정당국은 "2025년은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서 벗어난 해"라고 평가했다. 세입경정을 거쳐 확정된 최종 세입예산 기준에서 결손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윤진 재경부 국고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결손이 났다는 지적에 '추경을 통해 세입경정을 했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세입 예산이 372조1000억원'이라며 "수정된 세입 예산을 기준으로 국세수입을 평가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정책관은 "연도 중 실제 세수가 당초

예측보다 부족하면 지출도 그에 맞춰 공식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라며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예산 불용이나 하반기 집행 제한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중 실제 세수 흐름이 당초 전망과 크게 달라질 경우 추경을 통해 세입예산을 공식 수정하고, 이에 맞춰 지출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운영이라는 취지다.

◆세출 예산 집행률 97.7% 최근 5년간 최고... 불용액 10조로 5년래 최소

2023년과 2024년에 비해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세출 예산 집행률도 높아졌다. 총세출은 예산(604조7000억원) 중 591조원을 집행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로 최근 5년 기간(2021년 97.6%, 2022년 96.9%, 2023년 90.8%, 2024년 95.6%, 2025년 97.7%) 중 가장 높았다.

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뜻하는 불용액도 크게 줄었다.

세출 예산에서 집행액과 다음연도 이월액(3조7000억원)을 차감한 불용액은 10조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20조1000억원) 대비 10조1000억원 감소해 최근 5년 기간 중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3조1000억원이었다.

일반회계 국가재정정상 세계잉여금은 ▲교부세(금) 우선 정산 ▲공적자금상환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고, 잔액은 세입으로 이입하거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근거 법률에 따라 자체 세입처리한다.

강윤진 정책관은 "2023~2024년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해 재정운용에 차질이 있었는데, 2025년도에는 재정운용을 정상화하고 책임있는 적극 재정을 추진한 결과 세수 오차도 큰 폭으로 축소됐고 경제 회복도 크게 뒷받침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6년 예산 집행이 개시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중부터 차질 없는 재정 집행을 도모하고 세수 추계도 개선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 내부에서 추경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재호,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선언 "남부 수도 건설"

"통합 무산 시 차기 선거 불출마" 배수진
45년 행정·정치 경륜 균형발전 적임자 자임

더불어민주당 이재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10일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출마선언을 통해 "지방수도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남부권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 광주의 혁신 역량과 전남의 잠재력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남부 수도를 건설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31년간의 공직 생활과 4선 국회의원, 농식품부 장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거친 45년의 행정·정치 경험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꼽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경험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확실한 책임자임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전남광주의 대통합·대전환을 위한 3대 중점과제와 4대 권역별 개발전략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3대 중점과제로 ▲에너지 자주권 선언 및 지산지소 원칙 확립 ▲전력요금 차등제 도입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중 20% 유치 및 해상풍력 육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4대 권역별 개발전략은 지역별 특성을 극대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광주권은 2차 SI 집적단지화 반도체 후공정 상생과 운드리를 유치해 첨단 기술 심장지로 육성하고, 전남 동부권은 탄소중립 철강연구센터 구축과 석유화학 산업 재편을 지원해 글로벌 경제·문화 허브로 재창조한다는 복안이다.

전남 서남권은 글로벌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 및 목포 신항 기능 강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해양 물류 중심지로 키우며, 농어촌은 햇빛·바람연금과 기본소득 도입으로 소득 안전망을 구축해 통합 도시의 든든한 뿌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그는 "통합은 시·도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며 "만약 통합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을 지고 차기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통합의 최대 뇌관인 청사 위치 문제에 대해 그는 "광주는 도시관리·문화·건설을, 전남은 산업·경제·농어업·환경을 전담하도록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인사·예산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청사는 4년 주기로 광주와 전남을 순환 근무토록 해 양 시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사람의 경쟁력은 그가 살아온 인생이 증명한다"며 45년 무결점 인생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치는 차가운 권력이 아니라 따뜻한 체온을 느끼는 헌신"이라며,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는 따뜻한 통합을 묵묵히, 흔들림 없이 해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